

# 공감하는 시민, 공명하는 지역사회를 꿈꾸며! -천안 복지세상을 열어나가는 시민모임

글 · 진경아 namoo-jin@hanmail.net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더군요. 평소에 잘 다니지 않는 곳이어서 그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골목 하나를 돌아 들어갔을 뿐인데 전혀 낯선 풍경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길에서 보기엔 비워둔 지 오래된 폐허처럼 보였고, 거기다가 몇 달 전 화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사람이 살고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게딱지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 속에 사람들이, 우리 이웃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거권 교육 후 우리가 조사해야 할 지역 중의 한 군데를 방문하고 난 뒤 한 참가자가 들려준 이야기다.

유독 눈도 많고 매서운 추위로 마음의 온도까지 끌어내리는 듯한 이번 겨울이 시작될 무렵 천안지역 저소득층 주거현황에 대한 교육과 현장방문이 시작되었다. 몇 해 전부터 저소득층 주거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선뜻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다. 복지세상을 열어나가는 시민모임(이하 복지세상)은 내부에서 토론을 해오다 현장을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지난해 주저하던 첫 걸음을 내딛었다.

이런 생각을 재촉한 것은 지난해 진행한 저소득층 아동 건강권 관련 조사를 진행하면서이다. 조사과정에서 만난 대다수의 저소득 아동이 너무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어 있었고, 경제침체로 점점 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밀려나고 있는 현실을 만나게 되었다.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는 집,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단칸방이 닭장처럼 연결된 집, 그것마저 월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외곽으로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었다.

가난한 이웃의 주거문제가 어려움이거나 과제라고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현장을 만나기 전에는 절실한 현실의 문제라고는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천안은 다른 도시처럼 달동네나 저소득 밀집지역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영구임대 아파트 대기자가 많아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고는 하는데 정작 아무것도 체감되지 않는다. 그런 문제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실재하는지조차 도통 알아채기 어렵다.

그렇다면 과연 그건 존재하는 것인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마치 눈가리개를 한 경주마처럼 반복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익숙한 일상과 그곳에서 1cm만 비껴있어도 낯선 세상인, 그리고 그 실상을 좀처럼 알아차릴 수 없는 통계나 숫자의 함의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복지세상은 그간의 활동을 통해 이런 문제의식을 키워왔다.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우리 이웃의 삶을 만나고, 거기서 느껴진 아픔을 지역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

복지세상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히는 사회복지 인큐베이터 사업도 결국은 우리 이웃이 겪고 있는 일상의 고통과 소외를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그 아픔의 해결사를 자처하는 대신 지역사회에 던지는 역할이었다고 할 수 있다. IMF 이후 벼랑 끝에 몰린 아이들이 안쓰러워 밥이라도 먹여야겠다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 파랑새겨울방학교실, 늦둥이로 얻은 막내아들이 발달장애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매주 아이를 들쳐 업고 서울로 내달렸던 엄마의 절박함, 중증여성장애인을 성폭행하고 후원금을 착복하는 시설에서 내몰려 오갈 데 없게 된 여성장애인들을 만났을 때의 그 아픔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게 하고 그 마음을 모아 하나로 세우는 과정이 아동청소년 전문단체로, 장애인부모모임으로 여성장애인단체 등을 조직하는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복지세상은 몇 년 전부터는 지역의 사회복지 기관단체들과 함께 지방정부 사회복지 예산 분석 과정을 통해 복지정책을 생산, 제안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모든 현장이 예산이나 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익숙하지 않은 방식인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예산이나 정책은 결국 그 지역사회와 가치와 지향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수치로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가 살고 싶은 지역의 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일시



복지세상 사무국 상근 활동가들



현재 진행중인 주거권 조사 사업 현장방문

적이거나 시혜적 차원이 아닌  
권리적 관점과 지향이 담겨지  
도록 하고 있다.

### IMF의 소용돌이가 한창이던 1998.

우리 사회 가장 소외되고 약  
한 이웃들과 함께 하겠다는 소  
망 하나 붙잡고 시작한 걸음이  
어느덧 12년이 지났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가혹하고 쌀쌀하기만

하다. 그러나 그 틈바구니에 작은 균열하나 내고 싶었다. 그 틈으로 훈훈한 온기가 넘나들  
고 타자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랐다. 공감한 사람이 마음  
을 움직여 지역과 구체적으로 공명하는, 그래서 더 큰 울림으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새로운 주민참여의 전형을 만들고 싶었다.

아직 어느 하나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 오히려 주눅들 때가 많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  
도 꿈꾸게 하는 것은 이런 마음을 나눌 사람이 바로 곁에, 함께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리  
고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주거권 조사가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 만나게 된, 만나게 될  
사람들이 또 나를 달뜨게 한다. 이번 만남이 가져올 공감과 그 공감의 파장이 만들어 낼 공  
명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복지세상 : <http://www.welfare21.or.kr/>)